

# 추곡수매가인하에 따른 농업인 보호 대책 건의안 채택 의견

의안 번호	제50호
----------	------

발의년월일 : 2003. 3. 5.

발 의 자 : 권국상의원의외 12인

## 1. 주 문

- 그동안 어려운 농업 여건속에서도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음.
-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 등의 급등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아픈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 추곡수매 약정가격을 작년보다 2%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접하고 농업인들은 농정시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큰 충격에 휩싸여 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2. 제안이유

-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WTO DDA협상과 2003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경쟁력 강화와 과잉공급 해소라는 명분으로 2003년 추곡수매약정 가격을 지난해보다 2% 인하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려 하고 있음.
- 이는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실을 무시한 발상으로 수매가격 인하 철회 및 농업인 보호대책 등을 마련 국회등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함.

##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업인 보호대책」 건의문

지금 우리 농촌은 정부의 2003년산 추곡수매가격의 인하 발표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하 조치가 현재 진행중인 WTO DDA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대외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은 농가소득의 52%를 차지하는 중요한 소득작목으로서 추곡수매가 인하는 산지의 쌀값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위주의 농촌 소득구조를 볼 때 추곡수매 약정가격의 인하는 침체에 빠진 농촌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써 농촌경제의 위축이 군민 전체에 파급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은 추곡수매가 인하에 앞서 농업소득 보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10만여 군민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중장기 쌀대책을 즉시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고사위기에 처한 농촌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혁신적인 쌀 소비대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는 8%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을 10%이상 수준으로 대폭 증액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상과 같이 우리 예산균의회 의원들의 요구 사항이 위기에 처한 10만여 군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사실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인식하여, 2003년산 추곡수매가 2% 인하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하고, 농업인 보호대책을 즉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10일

**충청남도 예산균의회 의원 일동**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중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